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77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11)아부·민오름
목장과 어우러진 거대 원형분화구

입력 : 2003. 12.19. 00:00:00



■아부오름

한라대맥 탐사단은 다시 아부오름을 시작으로 제2구간 탐사를 진행 중에 있다. 제2구간의 첫 기착지가 아부오름이다.

아부오름은 제주민란을 소재로 한 영화 '이재수란'의 주요 촬영지가 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비교적 널리 알려진 오름이다. 오름 마니아라면 꼭 찾는 곳일 정도로 오름 자체의 형태가 매우 빼어나고 경관이 수려하다. 정상에 올라 분화구 안을 들여다 보기 전에는 이 오름의 진가를 말할 수 없다.

아부오름 탐사는 11월 8일 오후 실시됐다. 탐사단은 송당마을에서 건영목장 방향으로 이동해 아부오름에 이르렀다. 이 오름은 송당리 남쪽 약 2km 지점에 있다.

오름 정상으로 향하는 길목에 세워진 표석에는 아부오름을 '앞오름' '전악', '아부악'으로도 표기해 놓고 있다. 산 모양이 믿음직하여 마치 가정에서 어른이 좌정해 있는 모습 같다 하여 아부악(亞父岳), 아부악(阿父岳)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송당마을과 당오름의 앞쪽에 위치해 있어 전악(前岳)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오름 정상에 오르기 전에는 아부오름의 진면목을 지나치기 쉽상이다. 오름 외형이 낮기 때문이다. 정상에 이르는 데는 많이 걸려도 10분이면 족하다. 한걸음에 정상에 올라보면 절로 입이 짝 벌어진다.

표고 301m의 이 오름은 크고 넓은 원형의 분화구를 가지고 있는 화산체이다. 화구의 깊이는 78m로 오름 자체의 평균 높이 약 30m, 최대높이 51m보다도 27m나 더 깊이 패어 있다. 오름 정상에 오르면 깊고 거대한 분화구에 순간적으로 압도된다. 분화구 안쪽 사면은 바깥 사면에 비해 훨씬 가파르고 넓다.

이 오름에 대한 느낌은 백인백색이다. 천연의 원형 축구경기장, 커다란 쟁반, 고대 로마 경기장 과도 같다는 느낌들이 쏟아진다.

아부오름의 분화구는 오히려 주변 오름에서 더 뚜렷이 나타난다. 높은오름과 거스름미악에서

바라본 아부오름은 오름 속 분화구의 모습이 아니라 오름 자체가 곧 분화구의 형태로 다가온다. 화구 사면은 영화촬영장비를 실어나르면서 훼손돼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분화구 바닥에는 삼나무가 빙 둘러가며 심어져 있고 그 안에서 방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부오름은 북방계 식물로 희귀식물인 피뿌리풀의 최대 자생지로 알려져 왔으나 무차별적인 남채로 거의 멸종된 상태다.

■ 민오름

민오름은 송당리에 소재한 표고 362m의 오름. 침오름과 이웃해 있다. 민오름 탐사는 12월 7일 실시됐다. 대천동을 지나 삼나무 조림지를 따라 송당목장쪽으로 들어가면 민오름 서쪽 기슭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별장으로 알려진 '귀빈사'가 자리하고 있다.

귀빈사는 국내 최대 국영목장으로 조성된 송당목장의 역사와 함께 한다. 송당목장은 제주 중산간의 광활한 초지대를 활용한 국책사업으로 1958년 조성됐으며 미국산 '브라만' 육용우 2백두가 도입되면서 제주한우의 개량이 착수되었다. 송당목장은 국민들에게 육류 공급기지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귀빈사가 지어진 것도 이 때다. 주변에 삼나무가 조림돼 송당목장을 조망하기 어렵지만 조림 전에는 목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시설됐음을 알 수 있다. 귀빈사 건물 현관 바닥에는 도입한 소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곳에 기거했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최고급 기자재로 꾸며졌다. 그러나 지금은 폐가로 방치되고 있다.

오름 정상 분화구에는 두개의 묘가 자리잡고 있다. 오름 주변에는 침오름 말고도 큰돌이미, 비치미, 개오름, 아부오름이 있으며 민오름 골짜기 앞으로 암설류로 보이는 작은 구릉이 위치하고 있다. 오름의 유래가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라는 데서 붙여졌다고 하지만 지금은 오름 능선에 삼나무가 뺄뺄이 조림돼 있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특별취재팀

[사진설명]대형화구경을 가진 아부오름 분화구의 초지와 방목 중인 소들의 모습은 영락없이 과거에 흔히 보던 제주농촌의 모습이다./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포커스]아부오름은 옛 노루·사슴 사냥터

천연의 축구경기장을 연상케 하는 아부오름은 옛날 엽장(獵場)이었다.

오름 주변에 4.3 때 없어졌다는 장기동이라는 동네가 있었고 이 동네에 가축들을 거래하는 가축시장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는 분명 엽장이었다. 그 이유는 숙종 20년에 제주목사를 지낸 이익태 목사가 지은 지영록에 뚜렷이 나와 있다.

지영록에 기록된 이 목사의 1694년 9월 10일 일기내용은 이렇다.

“새벽에 앞오름(狎岳) 업장으로 바로 향했다. 산길로 거의 30리다. 순시 나갈 때에는 으레 동서 양쪽에서 사냥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장관(將官)이 아병(牙兵) 2초(哨-군대편제로 약 백명이 1 초)를 거느리고 먼저 가서 산을 에워싸고 기다리고 있어서 산위에 임시로 거쳐하게 된 의막에 도착했다.

저물녘에 노루와 사슴을 평평한 들로 몰자 기군들이 앞다투며 쫓아가 쏘아 죽였다. 숲속의 구령을 뛰어 넘는데 말들은 나는 듯하고 사람들은 민첩해 사냥에 매우 숙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녁에 별방소(하도리)로 돌아왔다.”는 내용이다.

이 목사는 옛새 후인 16일에는 초악(草岳·새오름 저지악)에서 사냥을 했다. ‘아병 이초와 당번서는 영목 각 반의 하인들이 참가했는데 물이꾼 구군들이 이미 줄을 헤쳐 함성을 지르니 못 짐승들이 뛰쳐 나왔다. 총과 화살을 교대로 쏘아 죽여 등에 지거나 싣거나 하며 한꺼번에 잡은 것을 가져왔다. 역시 장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부오름과 비슷한 분화구를 가진 저지악도 업장이었음을 시사해준다.

어쨌든 사냥장소가 아부오름 분화구 내인지 아니면 그 주변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300여 년 전 이곳에서 있었던 사냥사실은 분명히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사냥하면서 질렀던 함성소리를 축구경기장 같은 분화구 능선을 돌면서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한편 지영록의 저자 이익태 목사(1633~1704)는 조선 숙종조 때인 1694년 5월에 제주목사로 부임, 2년 동안 운주당 우연당 연무정 등을 중수하고 우암 송시열 선생을 굴림서원에 배향했다.

[전문가 리포트]아부오름 분화구에 탄성 민오름 귀빈사, 적막감 가득

아부오름(앞오름)처럼 능선과 분화구가 신비하고 아름다운 오름도 드물 것이다. 오름나그네를 저술한 김종철 선생은 많은 오름들 중에서도 전형적인 원형의 분화구를 갖는 것은 조천읍 교래리 산굼부리, 안덕면 광평리 왕이메, 그리고 구좌읍 송당리 아부오름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아부오름 분화구가 눈부시게 빼어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아부오름과 같은 대형 화구경(火口徑)을 가진 분화구가 형성되려면, 과연 어떠한 분화활동을 했을까. 바로 우리 모두가 감탄해 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분화구 안의 정경은 주변의 자연을 축소시켜 끌어다 놓은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돌담과 삼나무군락, 그리고 초지와 방목 중인 소의 모습이 영락없이 과거에 흔히 보던 제주도 농촌의 모습이다. 분화구 주위를 빙 둘러가며 삼나무를 심고 소나 말의 이탈을 방지하고 있었다. 분화구 안쪽에도 삼나무가 군데군데 심어져 있는데 방목 중인 소나 말, 그리고 마소치기를 하는 마소

치기하는 테우리를 위한 휴식공간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흔적이야말로, 제주주민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과정에서 잉태된 역사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송당목장의 방목지인 민오름의 서쪽 사면 기슭에는 고풍스러운 집 한 채가 고즈넉하게 자리잡고 있다. 다름 아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별장으로 '귀빈사(貴賓舍)'란 별칭을 가진 단층 양옥이었다. 별장이 위치하는 곳은 너무도 한적하여 새소리도 멈추고 공기의 흐름마저 정지한 듯한 정적감에 휩싸여 있었다.

별장은 1950년대 초에 지어졌다고는 하나, 현무암을 깔끔이 다듬어 쌓아올린 건물 외벽이나 현대식 현관 등을 볼 때, 최근에 지은 양옥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였다. 당시, 미 8군 공병대의 지원을 받아 지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난다.

송당목장은 1950년대 초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당시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우유를 대량생산하고자 국영목장으로 조성된 것이다. 민오름은 물론 마주하고 있는 칠오름과 비치미오름 등 주변지역 일대가 송당목장의 부지에 속해 있으며, 오름들은 주로 목초 재배지와 방목지로 이용되고 있다. 남북으로 두 개의 봉우리가 마주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동서로 길게 늘어진 정상부의 능선은 부드러운 곡선이 이어지는 듯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기에 충분하다.

/정광중 탐사위원 (제주교대 교수/ 인문지리분야)

[알림]이번주는 올해 마지막 탐사입니다

한라산 탐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취재팀으로 구성, 매주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탐사를 위하여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20일(토)은 서거문, 거친 오름을 탐사합니다. 집결지는 당일 오전 9시까지 한라일보사 1층 휴게실입니다. 참가비는 1만원. 동행을 희망하는 독자 여러분께서는 기획특집부(750-2280)로 연락바랍니다.

△ '한라산대탐사' 홈페이지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탐사 동영상과 오름 관련 전문가들의 자료가 다수 게시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주는 올해 마지막 탐사입니다

특별취재팀/ 한승철부장(기획특집부)·강시영·이윤형차장()·표성준(편집부)·강경민 기자(사진부)

후원 : 한국언론재단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